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04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4월 23일 (음력 3월 18일) 수요일

전국 신도시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 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올 가을 아시아는 '비엔날레 전쟁'

광주비엔날레 등 7개 국제 미술행사 개막

올 가을 아시아에는 비엔날레의 지존을 겨루는 '문화전쟁'이 펼쳐진다.

오는 9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11월9일)를 필두로 아시아에서만 7개의 대규모 국제 미술행사가 연이어 개막하기 때문이다.

'3강 4중' 구도

'아시아의 넘버1'을 목표로 '총성없는 미술전쟁'에 뛰어든 곳은 ▲제3회요코하마 트리엔날레(9월13일~11월30일) ▲제7회 상하이비엔날레(9월9일~11월30일) ▲제2회 싱가폴비엔날레(9월11일~11월16일) ▲제6회 타이베이비엔날레(9월13일~2009년1월11일) ▲제3회 광저우 트리엔날레(9월11일~11월16일) ▲제5회 부산비엔날레(9월6일~11월15일) ▲제5회 미디어시티서울(9월12~11월15일) 등이다.

전쟁은 '3강 4중'의 구도다.

선두주자는 단연 광주비엔날레다. 우선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은 세계적인 큐레이터인 오쿠이 엔위저 감독을 전면에 내세워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제 미술계에서는 동시에 러브콜을 받은 작가의 경우 광주를 택하고 있다.

재단은 해외홍보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요하네스버그·베니스비엔날레의 홍보를 맡았던 독일인 마크 뮐러를 해외 홍보 에이전트로 선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뮐러는 5월 초 유럽 미술전문가와 언론인 등 21만명을 대상으로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관람객 유치활동을 벌인다.

광주비엔날레의 최대 라이벌은 상하이다. 상하이는 유럽파 스타급 매니저 행크 슬래이어·줄리안 헤이넨등 2명을 공동감독으로 뽑아 이달 초 베를린 비엔날레로 달려가 유럽 작가와 관객들에게 상하이를 알렸다. 광주비엔날레가 미국취향으로 가는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EU 중심국인 독일에서는 독일문화원 격인 괴테 인스티튜트의 도움으로 독일미술 저널 종사자들을 초청했다.

최대 라이벌 상하이

싱가폴비엔날레도 맹렬한 기세다. 두번째로 열리는 올해 비엔날레를 철저히 관광에 접목하고 있다. 일본인 기획자 후미오 난조가 지휘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난해한 현대미술의 나열을 피하고 조각·회화·뉴미디어·행위예술·사진·영상등 인간의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축제로 만들어 미술팬 뿐만 아니라 전세계 관광객들도 만족시킨다는 전략이다.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광저우트리엔날레, 부산 비엔날레도 각각 연륜을 쌓아가며 만만찮은 흡인력을 예고하고 있다. 9월 아시아 미술전쟁은 이미 시작되고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2천여 명의 나주시민들이 22일 오후 나주시 중앙로 남고문 앞에서 열린 '혁신도시 건설 촉구를 위한 나주시민 결의대회'에서 중단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정부 지역산업 정책 '균형 발전'→'경쟁 촉진' 전환

대불 등 혁신클러스터 전면 재검토

광주·전남 경제 활성화 '적신호'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정부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이 기존의 '균형발전 유도'에서 '경쟁 촉진'으로 바뀔 전망이어서 광주·전남 경제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정부가 각종 차세대 산업육성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 과도한 매칭펀드 (대응자금) 편성을 요구하는 등 지역간 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보여 경제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산학협력 R&D사업▲중소기업 지원체계 등 과거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16개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개최해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글로벌 패러다임이 '국내 지역간 경쟁'에서 '지역의 국제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지식경제부는 특히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관련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지방중소기업지원체계 등과 연계해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존 12개 클러스터추진단을 광역권 중심의 8개 추진단으로 축소·통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광주(광산업)와 전남 대불(중형조선), 창원과 부산 명지녹산 등 인근 산업단지가 합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또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혁신체제(RIS), 누리산업 등 산학협력 R&D사업도 기능 중복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산업 진흥이 과도한 매칭펀드 편성을 통한 지역경쟁 구도로 지나치게 기울 경우 경제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에 크게 불리할 수 있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산업진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6월까지는 최종 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혁신도시 계획대로"

주민대책연 집회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맞서 전국 혁신도시 주민대책연합회는 22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나주와 전북, 대구, 충북, 경북, 강원, 제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참여 정부의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 한다는 입장을 하루속히 발표하라"며 "감사원,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은 정책의 일관성까지 저버리며 현 정부의 의도대로 맞춰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 나주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나주시 중앙로 남고문 앞에서 '혁신도시 건설 촉구를 위한 나주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중단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운운은 지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긴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이건희 삼성 회장 퇴진

경영 쇄신안 발표…이재용 전무 '백의종군'

삼성 이건희 회장<사진>이 1987년 취임한 지 20여년만에 퇴진하고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도 고객총괄책임자(CCO) 자리에서 물러나 일단 해외현장 경험을 더 쌓는 방향으로 백의종군한다. 〈관련기사 4·11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온 전략기획실(실장 이학수 부회장)은 해체하고 특검에서 조세포탈로 문제가 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재산)는 실명전환을 거쳐 누락된 세금 납부후 개인과 가족 이익이 아니라 유익한 일에 쓰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략기획실 해체에 맞물려 이학수 부회장과 전략기획실 산하 전략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인주 사장은 잔무처리를 마친 뒤 일체의 직을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는 22일 오전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가지 항목의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은 쇄신안을 통해 은행업 진출을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비(非)은행 금융업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회견에 직접 나와 '국민께 사과 및 퇴진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저로부터 비롯된 특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전격 퇴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